
발행처 : 한국건강심리학회

발행일 : 2014년 6월 30일

발행인 : 현 명 호

인쇄일 : 2014년 6월 30일

주 소 :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대학원
성격 및 개인차 연구회 (302동 B107호)

제작처 : 나노미디어(전화: 02-703-7507)

전 화 : 070-4806-3331 팩스 : 02-816-5124

홈페이지 : <http://www.healthpsy.or.kr>

편집장 e-mail 주소 : rhoma777@hanmail.net

편집위원장 : 서경현(삼육대학교)

편집위원 : 강성군(강원랜드) 고영건(고려대학교) 권선중(침례신학대학교) 김용희(광주대학교)

유제민(강남대학교) 이민규(경상대학교) 이인혜(강원대학교) 장문선(경북대학교) 조성근(충남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한국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건강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하며, 건강심리학회의 공식적 학술 모임의 발표 내용과 건강심리학 분야의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 목록을 게재할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구독에 관해서는 한국건강심리학회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19, No. 2.

June. 2014.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published by

b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 per year and publishes original research articles and data. The Journal also publishes reports of the proceedings of academic meetings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Psycholog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views on the profession of Health Psychology, and a list of M. A. theses and Ph.D. dissertation in this area. Inquiries concerning the guidelines of the subscription for the Journal and the submission of manuscripts should be sent to: Editor, Kyung-Hyun Suh,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E-mail : rhoma777@hanmail.net)

Editor : Kyung-Hyun Suh(Sahmyook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Sung-Gun Kang(Kangwonland Addiction Care Center), Young-Gun Go(Korea University), Sun-Jung Kwon(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Yong-Hee Kim(Gwangju University), Jhe-Min You(Kangnam University), Min-Kyu Rhee(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Hyae Yi(Kangwon National University), Mun-Sun Chang(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ng-Gun Cho(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이 학술지는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한국건강심리학회 임원진

회 장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수석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국내협력부회장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국제협력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총무이사 조 성 근 (충남대학교)
교육이사 권 선 중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홍보이사 최 성 진 (부산메리놀병원)
학술이사 조 현 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재무이사 심 은 정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위원장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편집위원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수련위원장 박 준 호 (대전대학교 산업광고심리학과)

선임이사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고 진 경 (송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미리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김 용 희 (광주대학교 심리학과)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안귀여루 (강남대학교 학교 교육대학원)
장 문 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최 미 례 (육군사관학교 리더십센터)

감 사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고 문 김 교 현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국장 주 해 원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간사 홍 혜 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편집간사 김 선 미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 19 권 제 2 호

[개관논문]

코칭에서의 마음챙김과 수용-전념 기반 접근법 손 정 락 / 453

[경험논문]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기술훈련이 정서지능이 낮은 대학생의 정서지능,
대인관계문제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최 초 룡 · 손 정 락 / 469

NLP 상담 프로그램이 유아기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정 윤 주 · 김 윤 주 / 485

자비명상과 마음챙김명상의 효과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 김 완 석 · 신 강 현 · 김 경 일 / 509

마음챙김 명상이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의 우울, 불안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 서 은 성 · 김 미 리 혜 · 김 정 호 / 533

부모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정 기 원 · 안 귀 여 루 / 549

여성 독거노인의 후회, 자기노출, 원한 및 용서와 웰빙 간의 관계 서 경 현 / 565

알코올 사용 장애자의 자살생각과 자아 통제감, 무망감 및 가족지지의 관계
..... 권 영 실 · 현 명 호 / 585

도박심각도와 자살생각의 관계
- 도박 빚 압박감의 매개효과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
..... 권 영 실 · 김 현 정 · 김 소 라 · 현 명 호 / 603

대학생의 감사 성향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손 솔 · 서 경 현 / 619

부모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정 기 원 안 귀 여 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이들의 자아존중감 및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남부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273명이었으며, 측정도구는 부모양육태도 척도, 시험불안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였다. 연구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가 시험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민주적 양육태도와 허용적 양육태도는 시험불안에 대하여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양육태도 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시험불안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권위적 양육태도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낮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민주적 양육태도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권위주의형 양육태도와 시험불안 사이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부모양육태도, 시험불안, 자아존중감

[†] 이 논문은 정기원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안귀여루, (446-7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읍 산 6-2,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Tel : 031) 280-3484 , E-mail : agyr7@kangnam.ac.kr

청소년기는 인생발달과정에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이며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변화와 함께 가치관이나 행동면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간직해 온 일관된 자아에 위협을 받으며, 여러 가지 부조화 현상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된다.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제도의 부담과 학업성취에서의 경쟁,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과 성적 제일주의 풍토로 인해 심리적인 부적응 상태에 빠지기 쉽다. 고교생들은 대학입시 위주의 학습으로 인한 긴장과 불안 등으로 자발적인 존재로서의 성장에 장애를 받고 있으며, 부모들의 편향된 교육관과 일관성이 부족한 교육제도로 어릴 때부터 학업성취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해 왔으며 그러한 스트레스는 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일 때 그 정점을 찍는다. 실제 한 조사(통계청, 2010. 12. 05)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하루 평균 5.4시간 잠을 자고, 11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갈등을 겪는 주요 원인 역시 진학·진로 46.0%와 학업성적 3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학교생활에서 학업성적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이며 학생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따라서 각종 시험의 결과로 산출되는 성적에 기대가 큰 만큼 시험과 관련한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불안은 특성불안과 상태불안으로 나누어진다. 특성불안(trait anxiety)은 일반불안(general anxiety)이라고도 하며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안을 의미한다. 특성불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넓은 범위에서 좀 더 강하게 불안을 느끼게 된다

(Spielberger, Gorsuch, & Lushence, 1970). 한편 상태불안(state anxiety)은 특수불안(specific anxiety)이라고도 하며 특수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을 의미한다. 특성불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어떠한 특수 상황에서 상태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Gaudry와 Spielberg(1971)는 시험불안을 일반불안의 특수한 경우로 보고 시험이나 다른 평가 상황에서 경험되는 생리적, 행동적 반응을 가진 불쾌한 감정이나 정서 상태라 하였다. 한편 조수철(1989, 1991)은 불안(Anxiety)이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불쾌한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시험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배우고 학습해 온 것에 대한 성취 정도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일 학생들 스스로가 시험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 시험을 위협적으로 인식할 때는 불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험불안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 자체는 누구에게나 불쾌한 정서적 경험이기에 때문에 계속되는 불안은 감내하기 힘들고 행동 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 위협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불안 자체가 위협이 되어 각종 정신병적, 신경증적 증세와 같은 심각한 정서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김은숙, 1990). Sarason(197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불안 상태를 보이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비하가 심하고 모험을 좋아하지 않으며 백일몽에 빠지는 행동양식을 자주 보인다고 한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 중의 대부분은 시험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시험불안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많은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시험불안이 너무 커서 자기 자신의 시험불안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부로 그 증상을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 증상을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증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기억력 감소, 두통, 복통, 우울, 신경과민, 불안감 등의 증세를 보인다(류정희, 신현숙, 2006).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는 최근 혼자 사는 노인 가정이나 독신자 가정의 1세대 가정, 부부와 아동으로 이루어진 2세대 가정, 이혼의 증가로 인한 한 부모 가정, 외국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는 다문화 가정 등 핵가족화를 넘어 가정의 틀과 구성원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교육도 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세대 가정에서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그들의 부모이며, 부모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된다. 결국 가정은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그 속에서 자기 발달을 이루어가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한 인간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특히 급속하게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청소년기에는 더욱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란 하나의 문화방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Fishbein, 1975; Purkey, 1967).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 결과들이 보고됨에 따라(우희정, 1933), 많은 학자, 교육자, 일반 부모의 관심이 오랫동안 이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안경미, 2007). Baumrind (1991)도 자아개념을 형성함에 있어서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들이라고 하며 어린이가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초기의 환경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하였다. 이에 시험 불안과 관련해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가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문주와 이해성(1991)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시험불안 수준 및 발달을 가정환경, 그 중에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부모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게 된 자녀는 자신을 비하하게 되며 자신감이 결여되고, 사회적으로 위축된다. 그와 동시에 자녀는 부모에게 적대감을 가지며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며 시험불안이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시험불안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는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사회적 적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여러 대인관계에 의해 확인, 수정, 통합되는 '나'라는 존재의 기본 개념이 확립하기 때문이다(이숙, 1988). 자아 개념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일부로서 개인의 자아개념은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두 측면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적 정체감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

인적 특성과 개성에 근거하여 갖게 되는 자아개념인 반면, 사회적 정체감은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이에 결부된 정서와 감정에 근거한 자아개념이다.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청소년 후기의 특징으로 자아존중감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른 발달 단계보다도 청소년기에 활발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문제 해결능력 부족이나 부적응을 보이며 우울, 불안 및 낮은 성취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김지연, 1999). 조진희(1998)는 시험불안에 대한 자신의 연구에서 시험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심리 내적, 가족적, 학교환경 변화요인이 모두 요구된다고 하면서 특히 '개인의 심리 내적 요인'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청소년의 시험불안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이들의 자아존중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이들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시험 불안 사이에서 매개 변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일차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이 다시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으로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시험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험불안이 어떤 요인들과 관련이 높은가를 알아보는 것은 그 예방이나 치료 면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남부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총 315 사례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42 사례를 제외한 273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중 남학생은 134명(49.1%)였고 여학생은 139명(50.9%)이었다.

도구

부모양육태도 척도. 이 척도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시형 등(1997)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표준화하였으며 어머니, 아버지 각각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부모양육태도를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유형, 민주적 양육태도 유형, 허용적 양육태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문항은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세 유형별로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각각 태도의 점수를 구하였다. 원척도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게 나왔던 허용형은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는데, 수정문항은 요즘 학생들의 소비 성향과 관련 있는 문항으로 “부모님께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내 맘대로 사도 상관하지 않는다”, “부모님들은 내가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사용해도 그냥 내버려두신다”로 수정하였다. 수정 후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권위주의형 .877, 민주형 .852, 허용형 .692 이다.

시험불안 척도. 시험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국내에서는 박순환(1986)이 37개 문항으로 구성된 Sarason의 Test Anxiety Scale을 번안하여 36개 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원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박순환의 연구에서 .82 이었다. 원 척도의 문항 중 지능검사에 관한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수정 후 본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 α 값은 .842이다.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최보가와 전귀연(1993)이 Coopersmith와 Pope, McChale, Craighead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한 도구이다. 척도는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등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문항내용이 대상자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총체적 자아존중감 .726, 사회적 자아존중감 .894,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868,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624 이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살펴보았으며 각 변수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모 양육태도와 시험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부모양육태도, 시험불안,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표1 참조).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시험불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민주형은 시험불안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허용형과 권위주의형은 시험불안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태도 중 민주형 아버지와 허용형 아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권위적인 아버지는 시험불안과 유의한 상관이 나왔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시험불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민주형과 허용형은 시험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권위주의형은 시험불안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형인 경우에는 자녀의 시험불안이 낮으며, 권위주의형 양육태도인 경우에는 시험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시험불안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들의 독립적인 효과와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참조).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시험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데, 양육태도와 시험불안의 다중상관은 $R^2 = .039$ 로서 시험불안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권위주의형 양육태도만이 자녀의 시험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형 아버지와 허용형 아버

표 1. 부모양육태도, 시험불안,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부의 권위주의형 태도점수	민주주의형 태도점수	허용형 태도점수	모의 권위주의형 태도점수	민주주의형 태도점수	허용형 태도점수	시험불안	총체적 자아존중감
부의 권위주의형 태도점수	1.000							
민주주의형 태도점수	-.0517**	1.000						
허용형 태도점수	-.229**	-.129*	1.000					
모의 권위주의형 태도점수	.640**	-.309**	-.115	1.000				
민주주의형 태도점수	-.310**	.609**	-.136*	-.511**	1.000			
허용형 태도점수	-.037	-.097	.554**	-.188**	-.060	1.000		
시험불안	.190**	-.096	-.096	.234**	-.054	-.058	1.000	
총체적 자아존중감	-.172**	.306**	-.013	-.201**	.384**	-.041	-.206**	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2. 부모의 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예언변인	B	β	t	p
권위주의형 아버지	.191	.167	2.239	.026*
민주형 아버지	-.020	-.017	-.235	.815
허용형 아버지	-.098	-.060	-.940	.348
권위주의형 어머니	.331	.280	3.944	.000***
민주형 어머니	.115	.089	1.278	.202
허용형 어머니	.000	.000	.006	.995

* 종속변수: (아버지)시험불안 ($R^2 = .039$, $F = 3.646$ *, $p < .05$.)

(어머니)시험불안 ($R^2 = .061$, $F = 5.831$, *** $p < .001$.)

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시험불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권위주의형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시험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타나났는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시험불안의 다중상관은 $R^2=.061$ 로서 시험불안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들 중 권위주의형 양육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나 민주형 양육태도와 허용형 양육태도는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는 않았다.

위의 분석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 중 권위주의적 태도가 자녀의 시험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해주었으며 특히,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

육태도가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보다 시험불안을 더 많이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가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경우 민주주의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의 하위 유형별로 양육방식이 미치는 영향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권위주의형 태도와 민주형 양육태도가 자녀의 가정에서

표 3.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자아존중감 (전체)	권위주의형 아버지	-.005	-.009	-.122	.903
	민주형 아버지	.183	.304	4.287	.000***
	허용형 아버지	.021	.025	.394	.694
$R^2=.094, F=9.336$					
사회적 자아존중감	권위주의형 아버지	.059	.067	.954	.341
	민주형 아버지	.375	.422	6.131	.000***
	허용형 아버지	.111	.088	1.456	.146
$R^2=.149, F=15.684$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권위주의형 아버지	-.278	-.266	-4.313	.000***
	민주형 아버지	.417	.400	6.601	.000***
	허용형 아버지	.028	.019	.350	.726
$R^2=.341, F=46.470$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권위주의형 아버지	-.173	-.249	-3.382	.001***
	민주형 아버지	.012	.017	.231	.817
	허용형 아버지	-.022	-.023	-.358	.720
$R^2=.064, F=6.174$					

* $p<.05$, ** $p<.01$, *** $p<.001$.

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용형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권위주의형 양육태도와 민주형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의 다중상관은 $R^2=.064$ 로서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권위주의형 태도만이 자녀의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형 양육 태도와 허용형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권위주의형 양육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민주형 양육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 존중감의 하위 요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 자아존중감과의 다중상관은 $R^2=.186$ 로서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민주형 태도만이 자녀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와 허용형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표 4.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자아존중감 (전체)	권위주의형 어머니	-.008	-.013	-.186	.853
	민주형 어머니	.254	.376	5.643	.000***
	허용형 어머니	-.015	-.021	-.353	.724
$R^2=.148, F=15.521$					
사회적 자아존중감	권위주의형 어머니	.044	.048	.728	.467
	민주형 어머니	.453	.455	6.987	.000***
	허용형 어머니	.043	.040	.693	.489
$R^2=.186, F=2.434$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권위주의형 어머니	-.270	-.251	-4.430	.000***
	민주형 어머니	.546	.466	8.365	.000***
	허용형 어머니	.048	.037	.757	.450
$R^2=.403, F=6.487$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권위주의형 어머니	-.168	-.233	-3.306	.001**
	민주형 어머니	.050	.064	.925	.356
	허용형 어머니	-.014	-.016	-.259	.796
$R^2=.073, F=7.051$					

* $p<.05$, ** $p<.01$, *** $p<.001$.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형 양육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의 다중상관은 $R^2=.403$ 로서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4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민주형 양육태도가 자녀의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용형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민주형 양육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의 다중상관은 $R^2=.073$ 로서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형 양육태도와 허용형 양육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라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시험불안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의 분석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시험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권위적 양육태도와 시험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참조).

1단계 회귀계수는 -.172 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190,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159, 매개변수가 -.178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통계적 유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 값과 p 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의 효과가 유의하고 또한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권위주의형 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자아개념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3단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시험불

표 5. 아버지의 권위적 양육태도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독립/매개/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증단계	β	t	p	R^2
권위주의형	단계 1	-.172	-2.874	.004**	.030
	단계 2	.190	3.177	.002**	.036
아버지/자아존중감/시험불안	단계3 (독립변수)	.159	2.661	.008**	.067
	단계3 (매개변수)	-.178	-2.988	.003**	

* $p<.05$, ** $p<.01$,*** $p<.001$.

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개념은 부분 매개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단계에서 3.0%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단계에서는 3.6%, 그리고 3단계에서는 6.7%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 (1987)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매개변수임을 검증하였다($Z=2.218, p<.01$). 즉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유의한 매개변수이다.

한편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201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234,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201, 매개변수가 -.165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표 6참조). 통계적 유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 값과 p 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단계에서 매개변수의 효과가 유의하고 또한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총체적 자아개념이 매개역할

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3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경우에도 양육태도와 시험불안 사이에서 자아개념은 부분 매개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은 1단계에서 4.0%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단계에서는 5.5%, 그리고 3단계에서는 8.1%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가설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1987)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매개변수임을 검증하였다($Z=2.417, p<.01$). 즉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유의한 매개변수이다.

논 의

청소년기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른 발달 단계보다 활발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때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가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의 청소년들을 입시와 관련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들 중 다수의 학생들은 심각한 시험불안

표 6.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태도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독립/매개/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증단계	β	t	p	R^2
권위주의적 어머니/총체적 자아개념/시험불안	단계 1	-.201	-3.372	.001**	.040
	단계 2	.234	3.971	.000***	.055
	단계3 (독립변수)	.201	3.381	.001***	.081
	단계3 (매개변수)	-.165	-2.775	.006**	

* $p<.05$, ** $p<.01$,*** $p<.001$.

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 존중감이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는 권위주의적, 민주적, 허용적 양육태도 중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시험불안을 유의하게 설명해주었으며 특히,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보다 시험불안과 더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시험불안에 대한 설명력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자녀에 대해 보다 많은 통제와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변화가 자녀의 시험불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배형의 부모는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아동이 이 기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예의가 바르나 대체적으로 순종적, 수동적, 의존적이며 반항적·투쟁적, 불안, 자학적인 행동을 많이 하며, 자립심과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Symonds(194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시험불안이 높은 학생들은 시험자체보다는 시험결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시험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모나 교사들의 반응에 더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는 김애리(1991)의 연구 결과 역시 부모가 권위적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자녀의 시험불안이 높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준다. 김문주와 이혜성(199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

의 시험불안 수준 및 발달을 가정환경, 그 중에도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클 때 부모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게 된 자녀는 자신을 비하하고 위축되는 동시에 부모에게 적대감을 가지며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시험불안이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들일수록 자녀에게 시험과 관련된 심리적 부담을 더 주고 이로 인해 자녀들은 더 위축되면서 시험불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시험불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민주형과 허용형은 시험불안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권위주의형은 시험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시험불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민주형과 허용형은 시험불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권위주의형은 시험불안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민주형인 경우에는 자녀의 시험불안이 낮으며, 권위주의형 양육태도인 경우에는 시험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민주적인 양육태도로 대하면 자녀가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나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증대하게 되고 따라서 현실적응능력을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해준다(Barber, 2002). 국내연구에서 임영희(2008)은 권위주의형 부모에 대하여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함으로써 자녀 자신이 능동적으로 자신을 탐색할 기회를 박탈하므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짐을 시사하였고, 성공과 성취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자녀의 정서적 독립을 격려하는 민주형 부모들의 자녀들은 학구적

성취와 높은 포부 수준을 지닌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부모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가 학교 적응을 잘한다는 연구 결과 역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김정희, 안귀여루, 2013).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시험불안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 하였다. 개인의 적응에 가장 기본적인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으로 형성되고 이는 또한 시험불안에 다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시험불안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권위주의형 양육태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에서 전반적인 결론을 시험불안 감소를 위한 방향으로 수렴한다면,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수준이 낮고,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민주형 양육태도 수준이 높고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시험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험불안감소를 위한 상담의 방향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부모양육태도의 이해와 부모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시험불안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므로 시험불안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와 연계하여 가정에서도 자녀의 시험불안을 줄이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향상이 시험불안을 줄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므로,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학생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전문 상담교사의 역할과 상담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상담 프로그램 및 부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교사의 역할과 일선 학교에서의 상담 활동 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본 연구는 경기 남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폭넓은 표집 대상을 선정하여 시험불안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의 측정을 자기보고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측정이 가진 문제점과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방법으로 관찰법이나 면접법 등의 연구방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뿐만 아니라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부모 교육이나 상담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에 근거한 예방교육과 치료 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문주, 이해성 (1991).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정신의학* 제2권 제1호.
- 김애리 (1991). 부모양육태도와 학업배려가 자녀의 시험불안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 (1990). 한국학생들의 연령에 따른 시험불안 추

- 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안귀여루 (2013).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한국건강심리학회지*, Vol.18, No.4.
- 김지연 (1999). Elchones의 Enrichment프로그램효과연구 : 청소년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정희, 신현숙 (2006). 시험불안, 동기적 성취전략 및 학업적 유능감의 관계 모형검증. *한국상담학회지*, Vol.7, No.1.
- 박순환 (1986). 시험불안성공-실패경험 및 자기지향적 주의가 과제수행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미 (2007). 아동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우희정 (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체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 박현선 (1997).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삼성생명 사회 정신건강연구소연구보고서제97-7호*.
- 임영희 (2008). 아동이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여성문화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철 (1989). 시험불안의 측정. *신경정신의학* 제28권 제4호.
- 조수철 (1991). 시험불안의 개념과 이론.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2권 제1호.
- 조진희 (1998). 여고생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요인관계 관한 연구. 이화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대한 연구(I).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2호
- 통계청 (2010).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44310
- Barber, B. K (Eds.). (2002).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ecis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aumrind, Diana (1991).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746-758 in Richard MLerner, Anne C. Peterson, and Jeanne Brooks-Gunn (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Garland Pub.Co. : New York London.
- C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H. Freeman.
- Fishbein, M. (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esachusetts:Addison-Wesley.
- Gaudry, E & Spielberger, C. D. (1971). *Anxiety and Educational Achievement*. NewYork: Johnwiley.
- Pope, A. W., McChale, S. M., Craighead, W. E. (1988).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Pergamon Press.
- Purkey, W. W. (1967). The self 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Florida Educ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ouncil*.
- Sarason, I. G (1972). Test anxiety and the mondel who fai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22, 410-413.
- Sieber, H. (1980). *Mathematische Formeln-Erweiterte Ausgabe* E.Ernst klelt, Stuttgart, Germany.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c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rntory*. Pal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T.: Bureau of publicatons, Teachers collage. Columbia University.

원고접수일: 2014년 3월 10일

논문심사일: 2014년 3월 21일

게재결정일: 2014년 4월 28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4. Vol. 19, No. 2, 549 - 563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 on Self-esteem and Test Anxiety: Self-esteem as a Mediating Variable

Ki-won, Joeng Gwi-Yeo-Roo, Ah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This study is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ypes of parenting, and students' test-anxiety and self-esteem within the third graders of high school. A total of 363 third year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the Yong-in Area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rents' authoritarian attitude and the students' level of test-anxiety was found to be significant.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students' self-esteem varied according to whether both of their parents were authoritarian or liberal. Thirdl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the parenting attitude and test-anxiety was proven. Last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ing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 test anxiety